

늦가을에 장미꽃을 피운 아름다운 사랑이야기

《뒤뜰에 장미가 피었습니다》 펴낸 최영주씨

정말 손바닥만한 책이다. 얼핏 훑어봐도 엽서크기 정도. 장미의 선홍빛 꽃망울이 연상되는 붉고 단조로운 표지에 검은 색으로 양감을 살려 장미나무를 돌을새김했다. 이 작고 아담한 책 속에 어떤 이야기가 담겼을까 궁금해 책장을 펼치니 '추억을 위하여...'란 짧은 문구와 그 아래 놓인 장미 한 송이가 보인다. 그리고 흑백판화를 보는 듯 정감 있고 단정한 이미지들이 이어진다. 일러스트레이터 최영주씨(42)가 펴낸 《뒤뜰에 장미가 피었습니다》(창작과비평사)는 이렇듯 여느 책에서 볼 수 없는 개성이 묻어난다.

“늦가을 어느 날 하숙집 뒤뜰에 핀 장미를 봤어요. 여름에 피어야 할 장미를 겨울의 문턱에서 본 느낌이 참 인상적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특별한 사연이 있는 장미더군요. 오랫동안 함께 살던 개를 먼저 떠나보낸 이전 집주인이 개가 좋아하는 것들을 물어두던 곳에 장미를 심었는데, 그 장미가 11월에 활짝 꽃을 피운 거였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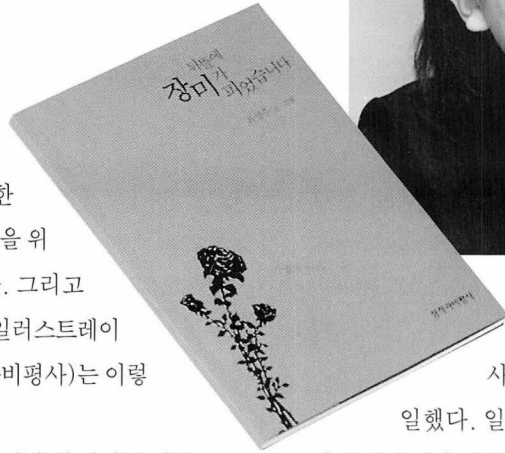
최씨는 런던 유학시절 경험한 할머니와 개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를 책 속에 담았다. 왼쪽 페이지에는 장미가 자라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오른쪽 페이지에는 할머니와 개의 일상을 판화풍의 담백한 그림으로 표현했다. 이야기의 시작과 끝은 두개의 창(책에 실제로 창문모양을 뚫었다)으로 연결된다. 첫장은 할머니가 창문 너머로 개의 발자국을 호뭇하게 바라보는 풍경이고, 마지막장은 홀로 남겨진 할머니가 창을 통해 어느새 훌쩍 자란 장미를 내다보는 풍경이다. 최씨는 이 책을 수작업으로 만들었다. 그만큼 품과 시간이 많이 들었다.

“출판이란 대량생산 과정을 거치다보니 책 만드는 데 어려움이 많았죠. 종이 선택, 인쇄, 제본까지 수없이 시행착오를 거쳤구요. 디자인 하나만 튀어도 제작비 걱정부터 하는 출판사들의 현실을 생각하면 제 의견을 군말 없이 따라준 출판사가 고마울 뿐이죠.”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그가 북아트와 인연을 맺은 건 1999년. 그전까지는 일반



최영주씨
창작과비평사/B6변형/28면/6000원



사업체에서 그래픽디자인으로 일했다.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하다보니 주제에 따라 책의 모양이 달라지는 아트북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급기야 북아트라는 불모지를 개척하기 위해 영국 유학길에 올랐다.

“아트북은 작가의 생각뿐 아니라 감정까지 담아냅니다. 아직은 제작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어린이, 문화 등 무엇이든 작품의 주제가 될 수 있죠. 천편일률적인 판형 속에 생각을 담는 게 아니라 책의 주제에 맞춰 그릇의 모양을 알맞게 재단하는 거죠. 이제 책도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닐까요?”

국내에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유럽에서 주목받는 북아티스트다. 지난해는 '이런 Books' 라는 제목으로 아트북 전시회를 열어 호평받았고, 지난 13일부터 일주일간 그룹전도 열었다. 앞으로 서울과 런던을 오가는 가족간의 사랑 이야기를 전화기와 실로 표현한 《지금쯤》과 팝업북 형태에 우리의 문화이미지를 담은 《I Love Korea》를 펴낼 예정이다. —박옥순 기자

한글과 컴퓨터 제휴 회사 - 진솔컴퓨터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PDF문서로 만들어드립니다.

PDF 문서의 활용 분야

- 웹(WEB)
문서를 인터넷을 통해 보게 하거나 배포할 때
- 전자문서
일반 기업의 사내 문서나 연구자료를 보관하려 할 때
- CD-ROM
CD-ROM을 통해 출판 분야에 활용하려 할 때

어떤 응용프로그램에서도 원본 그대로 놀라운 압축률

Web·DTP·Graphic
진솔컴퓨터

Tel. 2268-9727(대표)
541-5027-9 Fax. 515-2589
www.jinsolbooks.com
담당 : 정경아

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HX EASYTABLE

아래한글에서 만든 표를 QuarkXpress에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주요기능

- 아래아 한글문서를 QuarkXpress 문서로 자동변환/●마우스 작업으로 표를 신속히 작성하고 선택된 텍스트를 내용으로 입력/●칸을 다중선택하고 내용을 복사/●표 크기 또는 행 높이와 열 너비를 쉽게 변경/●칸을 합치거나 나누기/●행이나 열을 삽입하거나 삭제/●칸에 속성을 지정하고 복사/●각 칸은 텍스트칸 또는 그림칸으로 지정/●행/열 경계선과 표 테두리에 속성을 지정/●칸의 합을 구하기

제품가격

- 1User용:600,000원(부가세 별도)
- 2User용:1,000,000원(부가세 별도)

사용환경 QuarkXpress 3.3k

제품구입처 : 도서출판 진솔북스 TEL 02)2268-9727 FAX 02)515-2589
한맥 소프트웨어 : TEL:3452-7235, FAX:3452-7238 www.harmac.com

“모두 부자 되세요”가 음란하다고?

《한국 문화의 음란한 판타지》 펴낸 이택광씨

문화평론가 이택광씨(33)가 펴낸 《한국 문화의 음란한 판타지》(이후)는 제목만으로 내용을 짐작하기 어렵다. 한국 문화가 왜 판타지고 그것이 왜 음란하다는 말인가. ‘문화는 어떻게 현실에서 도망가는가’라는 부제를 봐도 제목과 부제 사이의 거리가 좀체 멀어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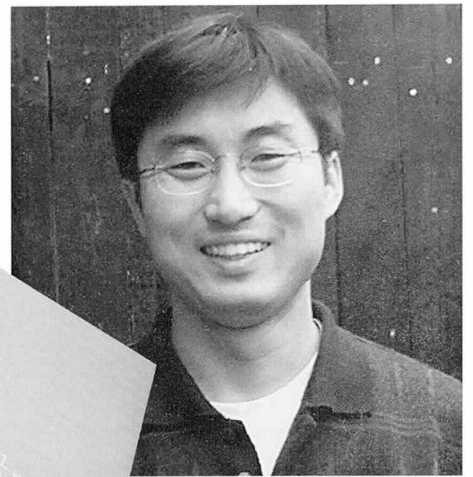
“음란한 판타지란 추상성이 리얼리티를 은폐하는 상황 자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 한국 사회에서 “게임만 잘해도 대학 간다”거나 “모두 부자 되세요” 같은 발언들이 풍미하고 있는데, 이런 음란한 판타지를 드러내는 본보기입니다.”

사회는 자체 내의 현실이나 모순을 은폐하기 위해 판타지를 만들어낸다. 정작 문제삼아야 할 것을 다른 것으로 바꿔버린다는 점에서 판타지는 음란하다. 그는 이런 음란한 판타지에 대한 윤리적 판단보다는 음란성을 드러내는 언어나 문화형식에 더 흥미를 느낀다. 그러므로 친일문학을 분석하면서도 그는 그것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판단하기보다는, 한국에서 민족 로망스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살피면서 친일문학이 한국에서 미완의 근대성과 결부된 문제라는 점을 짚어낸다.

이택광씨는 지금 영국 셰필드대 영문학과 박사 과정에서 영화와 문화이론을 전공하고 있다. 이 책에서 분석하는 문화현상들이 비교적 최근 것인 점으로 미뤄보면, 비록 인터넷을 통해 접하기는 하지만, 영국에 있으면서도 그가 얼마나 한국문화에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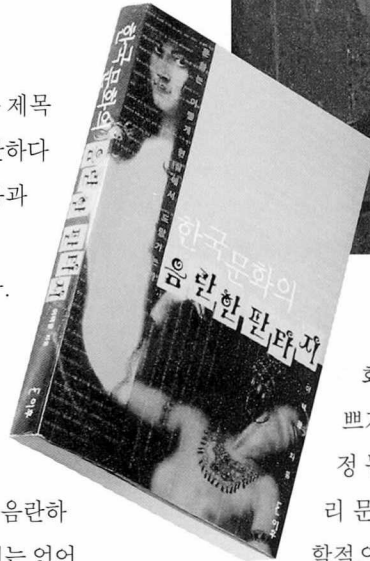
이 책은 서사와 묘사, 가시화와 시각화라는 중심축으로 전개된다. 리얼리티의 흔적을 지우는 순간 서사가 판타지로 전환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 판타지는 ‘시각화’라는 특징이 있는데, 시각화야말로 현실을 은폐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판타지는 묘사의 형태로 드러난다. 그가 우리 문화에서 꿈꾸는 것은 묘사를 극복한 새로운 서사의 복원이다.

이런 생각들이 지난 오년동안 그를 지배했다. 그는 이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영



이택광씨

이후/A5/342면/13,000원



화 <해리 포터>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나, 이문열·유승준·황수정 등을 둘러싼 사회적 스캔들 등 우리 문화의 다양한 현상에 대해 인문학적으로 분석한다. 그러면서 문화의 이면에 숨겨진 리얼리티를 추적한다. 이런 작업을 통해 그는 우리 문화의 지형도를 새롭게 그리고자 한다.

“저는 진보와 보수, 고급과 대중 등 우리 문화를 이분법적으로 분류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문화적 범주는 다른 범주들을 보완하면서 존재합니다. 특히 제가 이런 구별짓기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한국의 문화 지형도에서 대세를 이루는 것이 보수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국 상황에서 새로운 문화지도도를 그리는 일을 새로운 체제를 꿈꾸는 문화적 연대의 준비작업이라고 이야기한다. 물론 이 준비작업은 좌절의 흔적에 불과한 도착적 판타지를 걸어내고 리얼리티를 직시하는 것이다.

—김장근 기자

출력" 24시간
당신을 위한 **논스톱**
어디든 대동이 책임지겠습니다

자동하리교미무료
대동전산

IBM & MAC 전문출력
Corel Draw, 아래한글, MS-Office, 훈민정음, 매킨토시용 기타 소프트웨어

아래한글 및 IBM 분판출력
필름분판출력(4x6전지)
고해상도대형드림스캔
대형실사출력, CLC칼라출력
인화지, 단도필름, 레이저프린트
칼라복사(다량복사시할인)
Data CD Backup

● 출력문의 환영합니다 ●

대동전산
2275-0196~7
E-mail: sogo0318@chollian.net

명보극장 ●
명지대학교 ●
명지초3가 지하철도역 10번출구 ●
명지초3가시점 ●

대동전산